

‘빅딜’ 하루만에 “딴소리”... 대치정국 재연되나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간표 나와야 자원의외국 국조 가능”

野 “자원의외국 국조계획서 29일 처리... 공무원연금 천천히”

여야가 지난 1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의외국 국조가 실시를 주고받는 ‘빅딜’을 이뤄냈지만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합의문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여야가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자원의외국 국조 계획서를 처리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처리 시한과 자원의외국 국조가 실시를 연계하면서 이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과 자원의외국

에 대한 국조 문제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기구와 국회 특위의 활동 시한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처리 시한을 미리 확정하지 않는 이상 자원의외국 국조를 먼저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자원의 외고는 정권별이 아닌 사업별로 가겠다”고도 말해 새정치연합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정략적 접근”이라며 반발함에 따라 해빙기류를 타는 듯했던 연말 임시 국회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연금 개혁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제 협상에서 12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자고 했으나 절차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였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이어 “유럽의 경우를 보면 국민대타협기구가 1년, 2년씩 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했으나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라고 못 박았다.

즉,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 시한을 못 박지 않는 이상 자원의외국 국조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국조는 서두르되 연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는 상반된 입장이어서 대치정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당은 ‘자문 기구’ 정도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실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자원의외국 국조는 단 시일에 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에서 12월 임시국회보다는 1월이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평가라운지

김영록, ‘영화 관람시 광고시간 10%내 제한’ 법률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영화 관람시 광고시간을 상영시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영화 관람 시 상영하는 예고편 및 광고영상에 대한 규제가 없어, 관람객들이 지나친 예고편 및 광고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영화상영권이 광고 수익을 위해 광고시간을 점점 늘려가면서 본 영화 상영 시작까지 20여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광고 상영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영화관 입장권에 예고편 및 광고의 상영시간을 관람객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관람객들의 불편이 컸던 영화관 광고시간에 대해 법규정이 없어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진, 전역병사 300만원씩 지급 병역법 개정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 10일 모든 전역 병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무 복무한 병사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약 300만원)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3개월은 전역 후 취직이나 복학 등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드는 기간을 상정한 것으로서 1년에 32만명을 대상으로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추산했다. 김 의원은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젊음을 헌신한 병사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헌신에 대한 공평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권은희, 오늘 무등산 정상복원 정책토론회 개최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 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과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복원을 위한 시민모임’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무등산 정상 복원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에서는 ‘무등산 통신문, 원호사 상가시설 이전 방안’과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 현황과 과제’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안동순 과장과 광주시 김동수 과장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선 오구군 호남대 조경학과 교수, 임형철 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 박철웅 전남대 교수, 구본현 국방부 시설기획과 중령, 김영호 광주일보 사회부 기자가 참여한 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초이노믹스는 단기 성과 집중”

안철수 의원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1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강력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한국 경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미래 성장동력인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안 의원은 우선 “우리 경제가 40년 장기불황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뒤 “지금까지는 대기업·제조업·수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왔지만 이제 중소벤처기업·지식경제산업·내수 중심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 쌍두마차 체제를 만들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초이노믹스’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고 장기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탄을 날렸다.

그는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며 “창업을 많이 시키려면 이미 있는 기업들을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는 기업들에 제도적 지원을 주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창업하는 데 돈을 대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해 주승용·김관영·김영환·노웅래·문병호·최원석 의원 등 비노 축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권력구조 개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 주최로 열린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신 독재 권력에 향수 갖고 있나”

친이계 이재오 의원, 박대통령에 직격탄

친이(친이명박)계 중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에 휘말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유신 독재 권력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지 않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 주최로 열린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 정권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 그중에서도 유신 독재 권력에 대한 향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며 “이 정권이 요즘 하는 것을 보면 권력 독점을

넘어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에 대해서도 “내가 수행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미안하다고 말한 다음에 짜라시가 어렸다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지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희씨를 겨냥해선 “사람이라면 적어도 ‘시그리프’ 해 미안하다” 정도 이야기는 하고 불장난이든 물장난이든 말을 해야지”라며 “이런 게 총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권력암투설’ 정윤회-박지만 대질 성사될까

검찰 참고인 조사 검토에 박씨 출국 취소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권력암투설’의 한 축인 정윤회(59)씨와 대질신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세계일보에 대한 청와대 비서진과 정씨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함께 결론 낼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사사저널은 지난 3월 ‘정씨가 박 회장에 게 미행을 붙였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문건의 진위·유출 의혹 수사가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덩달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서로 다른 보도로 고소장이 들어갔지만 둘 다 ‘정윤회씨가 비선실세로 움직이며 박 회장을 죽이고 그들과 파위계임을 밝힌다’는 의혹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박 회장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정씨가 최근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박 회장도 침묵을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됐다. 달린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가 12일 출국하기로 계획했던 동남아 여행을 돌연 취소하면서 이미 검찰과 조사일정이 조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설 경우 정씨와 대질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정씨는 미행설을 억울해 하며 대질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모집

자랑★ 감사의 60년

1954 2014 60th

민음★ 소망으로 100년

학부

▶정시모집

①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과	8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플레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실용음악학과	3
	드럼, 기타(포크기타, 일렉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댄스, 특수교육, 미디어(영상, 심리영상) 등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② 원서접수 : 2014. 12. 19(금) ~24(수)

③ 전 형 일 : 2015. 1. 6(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13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1 605-1115 학부 0621605-1114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기본3인분 3+3 = 30,000원	기본4인분 4+4 = 4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국내산갈비2+2(480g) 20,000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625세대는 단리로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음★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싹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박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형 브랜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